

옷나무 활용 식품 규제 대응

임실군, 옷나무 활용 식품산업 활성화 공청회

임실군이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을 증점 추진 중인 가운데 옷나무 추출물의 식품사용 기준과 규격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지난 20일 임실농협 대회의실에서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옷나무 활용 식품산업 활성화'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식품공정이 개정되면서 옷나무 추출물의 식품사용 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 것에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청회는 임실군, 사업단, 옷 생산

농가, 연구기관 및 옷나무 활용 식품가공업체 관련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옷나무의 식품원료 사용 여건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 공동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개정(고시)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특허사항인 '장수버섯을 이용한 우투시울 제거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하여도 우투시울이 검출되어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옷을 활용한 식품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옷나무 추출물의 우투시울 검출기준이 기존 1.0mg/kg(1ppm, 우투시울 I 과 II 의 합)에서 10ug/kg(10ppb, 우투시울 I, II, III, V, 라플 각각)으로 변경(기존대비 100배 강화)되고, 분석대상물질도 증가했다.

일반적인 농약의 잔류 기준보다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옷을 활용한 식품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식품기준에 맞춰 식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 공정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최한석 교수의 '옷 발효기술을 통한 대중화', 중앙대학교 한상범 교수의 '옷나무 추출물의 독성성분 저감화 및 동시분석', 전북대학교 유효성평가센터 채한정 교수의 '옷나무추출물 추출물의 간기능 개선에 관한 효능연구'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옷발효식품가치창조사업단 운영팀장의 '옷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임실군청 최용환 과장, 한국농수산대학교 최한석 교수, ㈜샘온 송시환 대표, 프롬바이오 이만재 소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임실군과 옷발효식품가치창조사업단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규제 개선안과 여러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식약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농협 대회의실에서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옷나무 활용 식품산업 활성화'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2020년 도민체전 준비 총력

육상트랙 교체공사 완료, 관중석 보수공사 등 진행

남원시가 오는 2020년 제57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는 등 관련 경기장 개보수 및 체전 준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제57회 도민체전은 오는 2020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주경기장)에서 일일 경기장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5억원(국비 4.5, 시비 10.5)을 투자해 주경기장 육상트

랙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광판 공사는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원(국비 2.4, 시비 5.6)을 투입해 관중석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비 11억원을 확보해 화장실 개보수, 춘향골체육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내면,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산내면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개최될 제41회 산내면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게 된다.

수상자는 공익봉사장에 김재준(70)씨, 애향장에 김재섭(64)씨를 각각 선정 되었으며, 공익봉사장 김재준씨는 현재 산내면 방범대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건강음료를 후원하는 등 산내면민의 복지향상과 산내면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애향장의 김재섭씨는 재)부산 산내향우회장으로 매년 행사마다 고향을 찾는 것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와 임대주택 입주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주택 입주인 정신건강증진 앞장

남원시보건소,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와 업무협약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백동화)와 임대주택 입주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신건강 위기 입주인에 의한 공동생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약 996세대의 입주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자살 및 우울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례 남원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용래)는 지난 20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임실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임실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하여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과 한완수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순우 수석부회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비롯하여 임실군의장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과 도·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장 등이 수여됐다.

최용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열과 성을 다한 사회복지인들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의 소외계층 발굴과 나눔, 그리고 자원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심민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봉사로 수 많은 유공자들을 격려한다"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 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의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에는 따뜻한 오찬과 함께 사회복지인을 위한 10개 종목의 체육대회에 시설단체 종사자 13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와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20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내실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남원시에는 장애원을 비롯해 총 20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입소율은 9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도모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환익 여성가족과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육천인재숙

정형수 방송작가 초청 강연

인재양성의 요람인 순창군 육천인재숙이 최근 유명 방송작가인 정형수 작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정형수 작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99년 mbc 베스트극장 공모작에 당선돼 데뷔했다. 이후 '상도', '나도', '주몽' 등 수많은 드라마 히트작의 극본을 집필하며 유명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작가는 방송작가로서의 삶과 방송계의 일상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방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감과 창의성을 길러 다양한 직업에 도전해 볼 것을 당부하는 강연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을 접한 학생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방송작가에 대해 알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강사님 말씀대로 여러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강연을 마친 정 작가는 "인재숙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세상의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천인재숙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의 강사를 초청해 폭넓은 직업 체험을 소개할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일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